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순천 특강>

미래에셋 자산운용 강방찬 회장 '가치투자'

“기업의 현재보다 잠재력을 살펴라”

국내 가치투자의 대가 강방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말하는 가치투자란 무엇일까.

강 회장은 9일 오후 순천시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경제아카데미에 참석해 '세상의 변화와 함께하는 가치투자'라는 특강을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찾아내 투자하는 것이 가치투자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500만명이 해외여행에 나설 정도로 세계 관광업계의 큰 손으로 등장했다면서 이들이 어느 분야에 지갑을 열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분야에선 탄소에너지에서 그린에너지로의 지각변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산업변화를 예로 들었다.

강 회장은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9일 오후 순천시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경제아카데미에는 가치투자의 대가인 강방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폭우 속에서도 2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하는 지혜로운 수단이라면서 주식이 있다면 어떤 변화에도 현명하게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이지만 투자를 하려면 1등 기업의 주인이 되라

고 말했다. 1등 기업은 경기가 호황을 반복하는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극복하고 과점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부채널본부=김은중기자 ejkim@

새로운 소비층·산업·비즈니스 모델 주시 경기 안타는 '1등 기업' 펀드 투자 바람직

한 이날 강연에는 폭우속에서도 200여명의 순천지역 시민들이 참석해 가치투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은 주가만을 보는데 기업의 주가는 가치에서 나오고 기업 가치는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 결국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주식과 펀드의 본질은 변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의 세계에선 새로운 소비자와 산업,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등 3대 변화 요소를 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소비자는 중국 부유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들은 지갑이 두툼해지면서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주가수익비율(PER)과 주당순이익(EPS)이 객관적인 투자의 잣대가 되지만 PER과 EPS가 같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알지 못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PER과 EPS가 비슷하다고 할 경우 현대차는 판매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바로 영향을 받지만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판매가 줄더라도 이전에 팔린 차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동태적으로 PER과 EPS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주식투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주식은 변화를 즐기고 자본주의에 답습해 부에 동참

배추 한포기에 700원...폭락세 지속

작년 가을 1포기에 1만원을 넘나들었던 배추 소매가격이 700원까지 떨어지는 등 폭락세가 계속됐다.

9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배추는 출하지역과 물량이 더욱 늘면서 1주일 만에 22.2% 내린 포기당 700원에 팔리고 있다.

대과는 1단에 1180원, 무는 1개에 1080원, 양파는 3kg에 3400원으로 다른 채소 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 약세다.

구제역 직격탄을 맞아 급등세인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에 2950원, 목심은 2980원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에 값이 매겨졌다.

4월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 사상 최저

4월 금융기관 유동성(Lf·평균 잔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Lf 증가율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로 전월(4.7%)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Lf 증가율 둔화는 시중 통화량을 뜻하는 광의통화(M2·평균) 증가율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했다.

4월 중 M2 증가율은 3.9%로 전월(4.3%)보다 0.4%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004년 5월 3.9%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화점 수수료 매출액의 30%”

입주 中企 81% “소비자에 부담 전가”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에 입주한 중소업체 상당수가 높은 판매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리더스포럼에서 3대 백화점 입주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판매수수료율 현황과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매출액의 29.3%로 집계됐으며, 업체들의 81%가 '판매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중소업체를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

수료율은 23.5%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피혁잡화(34.1%), 남성정장(33.5%), 여성정장(33.1%), 화장품(31.0%), 가공식품(26.2%), 가전제품(18.7%) 순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기업의 54.7%는 '수수료율이 매년 인상된다'고 응답했으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답변이 28.5%로 가장 높았다.

업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7.4%), '세일시와 광상시 수수료

를 다르게 적용'(15.6%),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운영'(13.7%) 등을 꼽았다.

백화점 측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도 많았다. 입점기업 46.9%가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인테리어 비용부담'(54.9%), '관측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48.4%) 등을 주요 불공정행위로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59.4%는 '외국 명품브랜드와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지정'(39%),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16.1%) 등의 차별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 6개월새 최고

439조8천억원...전월보다 3조3천억 늘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39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 4조1000억원이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한은은 지난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겹치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3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모기지론 양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집담대출이 부진했으나 낮은 대출금리 수준과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도 대기업 등이 겹치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3조원이 늘어나 4월 중 6조5000억원보다는 증가규모가 축소됐지만, 운전자금 수요,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비교적 큰 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수신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106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정기예금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전월 말 휴일이 겹치면서 세금 납부가 미뤄져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511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이 늘었고,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30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억7000억원이 줄었다.

신용카드 이용 2년 만에 감소

계회소비 추세...4분기보다 2조7천억 줄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2년 만에 감소했다. 경제성장이 주춤해진 데다 당국의 억제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조7000억원(2.0%) 줄어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카드론이 5.7% 줄었고,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도 1.6%와 2.6%씩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이용실적 증가율은 7.2%로 지난해 4분기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자금은 지난 3

월 말 7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억원(0.3%) 감소했다. 반면 체크카드 이용은 늘어 1분기 이용실적이 1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4000억원(2.6%) 증가했다.

금융원 여신전문감독국 이준수 팀장은 "신용카드가 없는 학생이나 예금잔액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려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건전성은 아직 괜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영업확대가 주춤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명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